

한국현대사의 대표적 민족주의자

세계사刊 「장준하전집」 전3권



“모든 통일은 좋은가? 그렇다. 통일 이상의 지상명령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죽음은 곧 존재의 소멸이다. 몇몇은 한 순간의 이미지를 지인들의 기억속에 남겨 존재를 조금더 연장시킨다. 전생애를 함의하는 ‘뜨거운 상징’을 남겨놓고 죽은 이는 그를 추억하는 인간이 멸종되지 않는 한 ‘불멸’한다. 민족과 함께, 민족의 양심에 따라 한평생을 살다간 장준하 선생의 정신은 위의 문구와 함께 뜨겁게 빛난다.

53년 「사상계」를 발행하여 비판적·저항적 지식인의 계보를 탄생시켰고, 67,70년대 반독재·통일 투쟁으로 일관하다가, 75년 8월 17일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에서 의문사한 장준하 선생의 전집이 ‘세계사’에 의해 출간되어 뜨거운 상징은 식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환기시켜 주고 있다.

이 전집은 85년 ‘장준하 선생 10주기 추모 문집 간행위원회’가 엮은 그의 글들을 세계사가 새로운 편집구성으로 재출간한 것. 85년의 것은 1천부 인쇄되어 관계자들에게만 배포된 것이어서 이번 전집은 사실상 첫 공개출판인 셈이다.

제1권 「돌베개」는 선생의 항일투쟁 수기로서 1944년 일본군 학도병으로 끌려간 뒤 탈출, 광복군 편입, 조국에의 귀환까지의 역경을 특유의 힘차고 담백한 문체로 써내려간 글. ‘돌베개’란 단어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돌베개 이야기’에서 따온 것으로, 결혼 일주일 만에 일군에 끌려간 선생이 아내에게 ‘탈출(성공)’이라는 말을 암호로써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제2권 「지식인과 현실」은 「사상계」 권두언과 편집후기 모음집. “현재를 해결하고 미래를 개척할 민족의 새로운 세대의 등불이 되고... 종으로 5천년의 역사를 밝혀 우리의 전통을 바로잡고 황으로 만방의 지적 소산을 매개하는 공기로서... 미력을 바치고자” 창간된 「사상계」에 실린 그의 글을 통해 당시 시대상과 바른 언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제3권 「민족주의자의 길」은 선생이 여러 지면을 통해 자신의 뜻을 밝힌 글과 좌담, 그리고 선생에 대한 문익환·함석헌·김성식·홍남순·계훈제·백기완 제씨의 추모글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세계사 / A5신 / 각 500면 내외 / 각 5800, 9000, 9000원

젊은 시인들의 과격한 ‘신세계’ 응전

들꽃세상刊 ‘패러독스시선집’



‘섹스로부터 해방되자’ ‘마음껏 욕을 하자’ ‘차라리 동물을 배우자.’

이 과격한 구호들은 도서출판 들꽃세상이 내놓은 패러독스 시선집 「내 귀가 섹스쪽으로 타락하고 있다」 「독자놈들 길들이기」 「먹이를 하늘에서 구하는 새는 없다」의 각각의 부제들.

이 ‘삼부작’은 이성중심의 세계관이 한계를 드러낸 이후, 시인들이 ‘신세계’에 응전하는 방법 중의 세 가지 갈래이다.

그 첫번째는 ‘성에 대한 탐구.’ 사회 전체가 포르노그라피컬이라도 차갑고 축축한 골방에 엮드려 언어로써 세계를 고민하던 지난 연대였다면 당연히 ‘사랑에 대한 탐구’였을 주제가 바야흐로 ‘환속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 귀가 섹스쪽으로 타락하고 있다’ ‘에이즈를 위하여’ ‘핑크 핑크 핑크’ ‘우리들의 변태성욕’ 등 4부로 구성된 첫번째 시집에는 ‘현실에

내재되어 있는 반생명적인 성의 왜곡에 대한 저항의지’를 표출한 시편들과 “독자들의 속된 호기심만 자극해 그들이 꼬집는다고 하는 타락한 상업주의에 편승”하는 시편들이 혼재되어 있다.

두번째는 ‘욕에 대한 탐구.’ “욕의 원초적인 생명력은 죽음이 아닌 살림의 무기로써 사회와 화법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전통적인 화법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전망부제의 압담함을 욕으로써 돌파하고자 하는 시편들이 자리잡고 있다. 시에 있어서 한 금기처럼 여겨졌던 욕설의 등장은 금기를 깨는 바로 그 점에서 시언어의 확대와 정신의 발달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신랄한 야유와 격렬한 감정토로는 그러나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형상화해내고자 하는 치열한 시정신에서 한발짝 비껴선 ‘일회적 충격요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세번째는 ‘동물에 대한 탐구.’ 인간의 모습을 동물에 투영시킴으로써 인간에 대한 환멸을, 나아가서는 동물보다 못한 인간이 동물에게서 배워야 할 속성을 묘화해 낸 시편들이 모여 있다. 고진하, 김기택, 이문제, 장석남, 장정일, 최승자, 최준, 황인숙 등 8명의 시인의 작품이 각 8편씩 수록되어 있다.

이 세 권의 시집은 젊은 평론가들인 신현철, 이진우, 최인자 씨가 엮고 해설을 맡았다. 해설 제목은 차례대로, ‘환멸의 시학’ ‘욕과 욕망’ ‘상징과 전락’.

들꽃세상 / A5신 / 각 142면 내외 / 각 3000원

남자판·여자판 각 4,800원

내가 자랄 때는 왜 이런 책이 없었을까!

젊었을 때 미처 읽지 못한 사람들이 이구동성 한탄하는 말.

나에게 맞는 공부와 직업은? 결혼상대와 라이프스타일은? 미리 생각해 두지 않으면 어느날 갑자기 낯설고 당혹스러운 현실과 마주치게 된다. 타고난 성격과 숨어있는 재능을 원하는 삶과 연결시켜 불확실한 인생을 나의 다정한 친구로 변하게 하는 젊은날의 인생설계 노트

열일곱에서 스물다섯까지

민디 빙햄, 주디 에드먼드슨, 샌디 스트라이커/김훈·정현숙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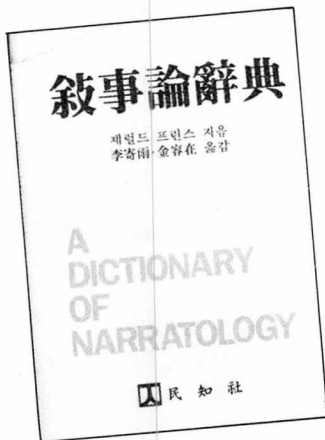
나만의 인생을 살기 위해, 지금 알아두어야 할 모든 것.

738-0931~2



서사론 정립의 어려움 더는 안내서

민지사刊 「敘事論辭典」



이 책은 서사론 용어사전인 Gerald Prince의 「A Dictionary of Narratology (Lincoln, Na.: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7)」을 번역한 것.

역자에 의하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대륙이나 영·미의 비평계에서 관심이 고조된 서사론(서사학)은 인문과학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말처럼(W.Martin)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설명적 모델로서, 다른 분야를 주도하는 학문적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관계, 사회, 역사, 문화 등이 '이야기(narrative)'를 통하지 않고는 성립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제는 서구의 소설론에서 '소설의 이론'이나 '산문의 시학'과 같은 종전의 용어들이 빛을 잃고, '서술(narration)' '언설(discourse)' '서사론(학)' '이

야기'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 사실들을 볼 때 소설론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자명한 일이다.

우리 학계에서도 서사론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그러나 서구의 이론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용하고 이해하기는 하지만 개념이나 용어에 스며있는 사고의 틀까지를 내면화·체화시키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역자후기에 의하면, 프린스의 이 「서사론사전」은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훌륭한 안내서가 되리라고 믿"어진다.

번역본임에도 불구하고 항목어가 가나다 순서가 아닌 영어 알파벳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이 사전은 우리나라에서는 서사론이 수용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 용어가 체 통일되지 못한 저간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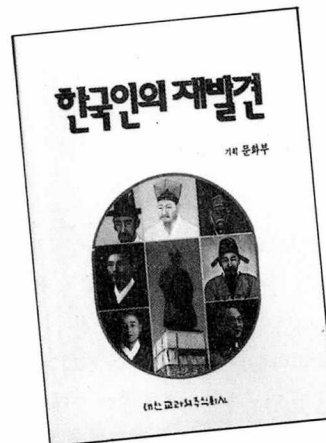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원저에는 예시된 작품의 작가명이 없으나 일일이 작가명을 붙였다는 점. 예를 들어 'antihero(엔티히어로)' 항목을 보면 '세리노의 「밤 끝의 여행」의 보드마, 에이미스의 「러키 짐」의 짐 디슨, 헬러의 「캐치 22」의 요사리안 등은 엔티히어로'라는 설명이 부기되어 있다.

200여 페이지에 불과한 이 책의 원서는 그러나 각 개념과 용어에 대한 풍부한 '참고문헌'과 '참조사항'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학연구자들이 이미 즐겨 들춰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과 '참조사항'을 자주 참고하는 참조하는 방식은 "서사론적 사고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는 첩경"이라고 원저와 역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민지사 / B6 / 326면 / 6000원

'이달의 문화인물' 12명의 평전모음

문화부 펴냄 「한국인의 재발견」



문화부가 '한국인의 재발견' 운동의 일환으로 90년 7월부터 추진해 온 '이 달의 문화인물'에 관한 자료, 즉 그동안 발간되었던 기존의 「문화인물」 소책자를 한데 묶어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 이 책자는 우리 역사에 빛을 남긴 문화인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문화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출판한 것.

모두 12명의 문화인물에 대한 생애와 업적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한편 문화인물의 연보와 연구논문 목록을 수록하여 문헌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꾸며져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인물은 만해 한용운, 중인의 벽을 뛰어넘어 대동여지도로 남긴 고산자 김정호, 소파 방정환, 유배생활 속에서도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 면화종자를 들여와 우리 衣料史에 대변혁을 일으킨 삼우당 문익점,

한국환상곡을 연주하면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우리말로 애국가를 부르게 한 안익태, '杏林의宗'으로 추앙받던 「동의보감」의 저술자 양평균 허준, 우리말을 지키고 그 앞길을 밝힌 한힌샘 주시경, 은둔과 풍류 속에서 한국문학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킨 고산 윤선도, 평생을 연극과 함께 살았던 이해랑, 정치와 학문을 바로 잡아 조선을 도덕국가로 재건해 놓았던 퇴계 이황, 진경산수 화풍을 창안해 조선의 독자적 미술세계를 그려낸 겸재 정선.

이 책에서의 '위인'들에 대한 서술은 혼란 위인전에서 보듯 한 인물의 비범함과 탁월한 업적을 극적인 구성을 곁들여 미화 일변도의 내용으로 채우는 것과는 구별되는 점이 있다. 즉 한 인물의 일대기가 아닌 한 인물의 전생애를 통하여 가장 특징적인 행동과 사실을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읽는 이들이 그 인물의 전모를 나름대로 구성해보고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한 것이다. 예를 들어 방정환의 경우는 '어린이와 맞절하고 존대말 쓰는 이야기꾼 똥보 아저씨'의 면모를 부각시켰고, 김정호의 경우는 '전국답사설과 백두산완래설은 사실인가' '얼마나 정확한가' '현대지도 제작과 관련하여 대동여지도의 현대적 평가' 등의 항목을 두어 그의 생애에 얽힌 '뒷면'을 통해 '앞면'을 조명해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책은 '12권의 위인전의 축약본'이 아닌 '12인의 평전'에 육박한다는 평을 듣는다.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A5신 / 280면 / 4000원

파라독스 중국 우화

우화는 파라독스다

우화를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훌렁훌렁 읽는 책 (빌려서 보십시오)

우화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차근차근 읽는 책 (사서 보십시오)

우화를 뒤집어서 거꾸로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두고두고 읽는 책 (가지고 다니십시오)

어쨌든 누구나 아주 재미있게 끝까지 읽는 책 (서점에 있습니다)

루쉰 외 22인의 중국 현대 작가가 쓴 우화 선집
이효림 역고 옮김 / 3,500원



정신세계사의 신간

*서점에 있습니다.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대) 팩시 739-8791

(책방 정신세계) 전화 741-7033(통신판매도 합니다)

석기시대의 여자

아일라

지금, 문명에 찌든 이 도시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 —

3만 년 전 — 자연이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던 아득한 원시시대에 오직 생존 본능 하나만으로 자신을 지탱해야 했던 여자 아일라. 벌거숭이 게집아이를 고아가 되어, 낯선 종족의 품에서 험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소녀, 여자, 인간 아일라. 그 석기시대의 여자 아일라가 보고 싶다. 지금, 문명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인간들의 이야기 — 《석기시대의 여자 아일라》.

진 아우열 장편소설 / 황보석 옮김 / 전2권 / 각권 4,500원